

강보현(사법연수원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강보현
2. 면담자: 김상철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6월 14일
5. 구술장소: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
6. 구술분량: 05분 00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사법연수원 시절 교육과정과 동기관계

면담자 : 그때 사법연수원 일과는 어땠나요?¹⁾

구술자 : 사법연수원 과정이 이(2)년인데 일(1)년은 집체교육이라고 실무교육을 강의 통해서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강의실에서. 그리고 이(2)년차 때 일(1)년은 실무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법원, 검찰, 또 변호사회 두 달, 두 달, 네 달 이런 식으로 실무 위탁교육을 받고 나중에 모여서 시험보고 평가받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었고. 첫째 연수원 일(1)년 동안에 강의 받는 것은 아침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면 아홉(9)시 출근해가고 강의 하루 종일 받고 오후에 다섯(5)시나 끝나는, 강의 끝나면 퇴근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별히 무슨 몇 백 명이 되는 인원이 아니라 오십팔(58)명이기 때문에 한 반입니다. 그래서 저 일(1)번부터 오십팔(58)번까지 다 친숙한 사이인데 주로 인제 노 대통령께서는 그 중간층에 있는, 그 중간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점심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또 일과 이후에도 어울려가지고. 노 대통령은 술을 그렇게 잘 하거나 즐겨하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마다하는 스타일은 아니구요. 술자리도 어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주말 같은 때 무슨 등산은 아니고 야산 같은데 올라서 여러 가지 인생론 토론하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요새하고 달리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에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소정의 과정만 훌륭히 이수하면은 법원, 검찰이 서로 자기네 인력으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던 때였기 때문에 무슨 남들보다 더 성적을 올려

1) 노무현 대통령과 구술자는 제17회 사법시험 동기이자 제7기 사법연수원 동기임. 1975년 3월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합격자들은 그해 9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했다. 사법연수원은 당시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소문에 있었다.

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에 대해서 더 파고들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시간은 특별히 과제가 있으면 모를까 그거 없는 한은 서로 친교(親交)하면서 지냈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아까 매일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건 연수원 강의 받을 때. 진짜 매일 같이 다녔어요. 끝나면 아까는 내가 다섯(5)시라고 그랬나? 다섯(5)시보다는 좀 일찍 끝났을 거예요. 아마 네(4)시쯤 끝났을 텐데. 별건 대낮에 끝나니까 다들 끼리끼리 모여 다니죠. 북창동이니 수유리 김도연 박사요 앞에도 올라가고, 하여간 여기 저기 많이 다녔어요. 술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술은 세진 않았지만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겨 참여했죠.

면담자 : 그때 대통령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같이 놀았을 때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좀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 글썄, 말씀. 말씀으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하나, 탐구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여간 법리면 법리 또, 사회현상이면 사회현상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지면 그 탐구욕이라고 그럴까, 그걸 파고들어가서 알고자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뒷부분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학습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단합니다. 나중에 공부해가면서 하여간 각 부문, 분야마다 파고들어가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지요.

■ 구술자 주요이력

1949. 서울 출생

1968. 대광고등학교 졸업

1972.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75. 제17회 사법시험 합격

1977. 제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0. 부산지방법원 판사

1982.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1984. 수원지방법원 판사

198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87.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0. 변호사 개업(서울)
1990. - 1993.08 변호사강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1993.08 - 2003.02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
2003.02 법무법인 화백과 법무법인 우방 합병, 법무법인 화우로 출범
2003.02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5.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2008.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2012년 현재)
2010.01 -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2012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제17회 사법시험, 제7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사법연수원 2년 차 시보 생활을 부산에서 함께했다. 1980년~198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재직했을 때에는 그보다 앞선 1978년 5월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노무현 변호사와 교류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관계가 지속됐다. 1990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재임 시기인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 변론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